

‘남원시 청년정책’ 청년에게 묻다

을 청년정책위원회 첫 개최
일자리·주거·교육 등 논의

남원시가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원시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하고자 12일 ‘2025년 제1회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가 청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운영해 온 ‘남원시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남원시 청년정책시행계획 ▲남원시 청년정책 발전 방향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선식 부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난 12일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민선식(뒷줄 왼쪽 두 번째) 부시장이 ‘2025년 제1회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 농촌보금

자리 조성, 반향주택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로 넘쳐나는 지역을 만들고자 일자리와 출산, 보육, 교육,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장수 어르신에 ‘특별한 선물’ 100세 이상 23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10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읍시는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현시점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목표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 장수축하물품 지원 대상 어르신은 총 45명이다. 지원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생일이 지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역 한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시는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10종을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물품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운수매트 ▲이불세트 ▲의류(내의)

▲전동집대 ▲육창예랑 매트리스 ▲성인용 거저귀 ▲건강보조식품이다.

어르신들은 신청 시 이 중에서 희망하는 물품 1가지에서 3가지까지 100만원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향교지구 공용 주차타워’ 완공

37억 투입 111면 규모...당분간 무료 시범운영

남원시가 새로 건립한 향교지구 주차타워 준공식이 오는 15일 열린다.

향교지구 주차타워는 국비 7억원, 도비 15억원

과 시비 15억원 등 37억원을 들여 조성한 도심형 공영주차시설로 지난해 3월에 착공해 올해 4월30일 완공했다.

이 주차타워는 철골조 2층 3단 구조로 연면적 2225㎡ 11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아동배려차량을 비롯해 전기차충전 시설까지 갖췄다. 주차타워는 당분간 무료 시범운영된 뒤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향교동 일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이달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자동 응모...100명에 지역 상품권

정읍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풍성한 혜택을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를 진행, 정읍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혜택 외에 추가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 기간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상이면 자동 응모되며 시는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정읍시 공식 SNS를 통해 공지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정읍 지역의 엄선된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상당)이 제공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세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으시고 정읍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 현장 조사

고창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합동...인권 면담·주거 실태 등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 및 주거 환경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적정 숙식비 징수 ▲근로자 인권 보호 ▲적정 주거환경 제공 등이다.

고창군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주요 송출국을 직접 방문해 인력을 선발하고, 국내 최초로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업인 기숙사와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신선했다.

또 송출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전문관 6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 제도 ▲365일 통역 서비스 ▲인권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농가에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운산농협과 대성농협에서 운영 중인 이 사업을 내년까지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 등록 대행서비스(이동 출입국)’도 실시하면서 농업인들이 행정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가 및 근로자의 80% 이상이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24년 무단이탈률은 1%대로 낮아졌고, 올해 2월 이후 입국한 2500명 중 무단이탈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심택성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상생의 농촌공동체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AI 활용 업무 처리 속도 개선

공직자 700여명 대상 생성형 AI 교육...데이터 전처리 등

고창군이 스마트 군정 구현을 위해 7월까지 ‘공직자 생성형AI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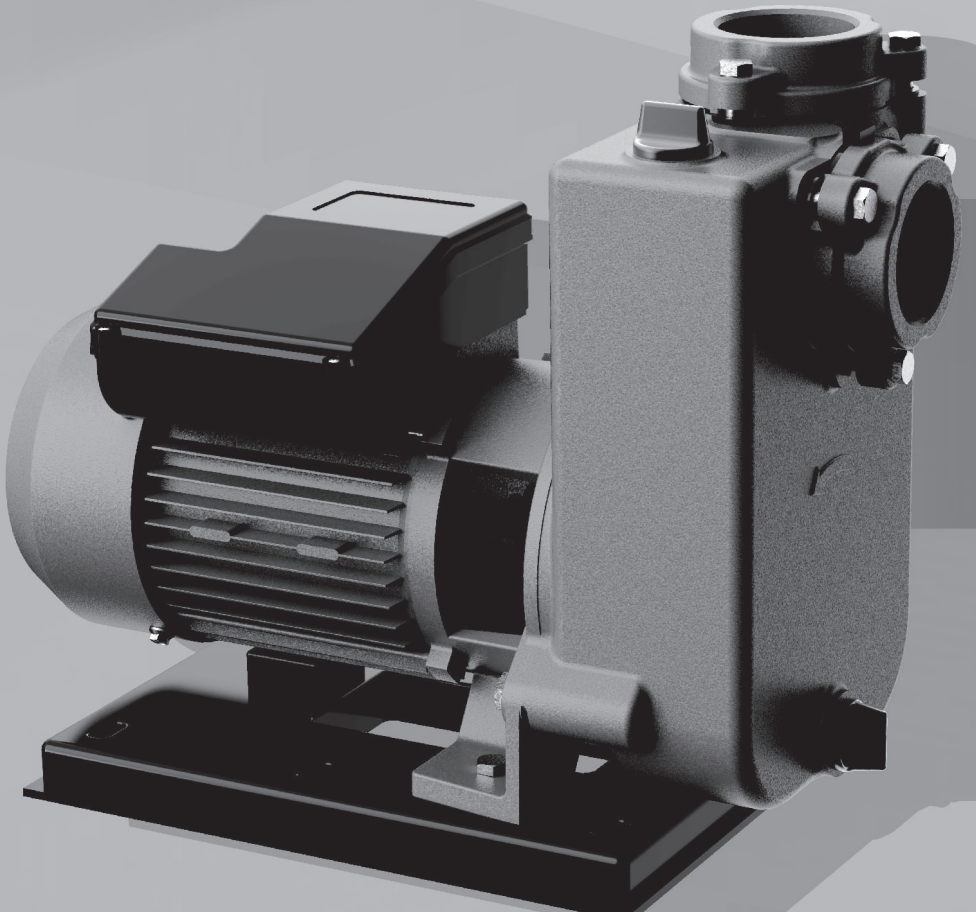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7월 4일까지 진행될 이번 공직자 생성형AI 활용 교육에는 공무원 7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커넥트인 김염숙 강사의 ▲챗GPT 워튼 AI 기본 활용법 ▲챗GPT로 정책보고서 만들기

▲AI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AI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챗GPT를 활용해 스토리보드 만들기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만들기 ▲다양한 AI를 활용해 솜뚝 영상만들기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AI기술을 통해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